

# 중국 상해 지역 일본 방직자본(在華紡) 연구\*

손 령 령\*

## Ⅰ 요약

본 연구는 중국 상해지역에 투자되었던 일본 방직자본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재편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침투했던 외국자본이 급변하는 중국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 갔으며 2차 대전 이후에는 국민당정부가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재화방으로 말미암아 민족방이 점차 몰락했다는 '쇠퇴론'과 재화방과의 대립과정에서 발전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발전론'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런 논의와는 다르게 '쇠퇴'와 '발전'의 양극단이 아니라 재화방이나 민족방이 중국경제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거나 쇠퇴했는가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민족방이거나 재화방이거나 자본축적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대립보다는 이들을 규율하는 외부환경에 대해 각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외국자본들을 활용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구축하는 경제 환경이 외국자본의 역할과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20세기 초 중국에 투자했던 재화방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 재화방, 민족방, 이중관세, 중일전쟁, 중국방직건설공사.

\* 본 연구는 손령령(2012)의 석사논문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E-mail : junicesun@naver.com

〈논문 투고일〉 2013. 8. 20

〈논문 수정일〉 2013. 8. 30

〈게재 확정일〉 2013. 9. 12

## I. 서 론

본 연구는 중국 상해지역에 투자되었던 일본 방직자본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재편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침투했던 외국자본이 급변하는 중국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 갔으며 2차 대전 이후에는 국민당정부가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중국 상해지역에 일본 방직자본이 유입되게 된 데에는 근대자본주의의 식민지진출이라는 경제사적 논리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즉 근대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급격하게 늘어난 생산을 국내에서 모두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과 생산된 상품을 해외시장에 판매해야만 스스로의 축적구조를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런 시기적 상황 속에서 제국주의 열강들은 청나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청나라는 땅이 넓고 생산물이 풍부하였으며 노동력까지 풍부하고 저렴하였다. 이에 반해 상공업을 발전시키지 못했고 국가 기강이 문란해져서 대부분 백성들은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 청나라 말기의 이런 혼란을 이용해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은 청나라의 시장을 강제로 편입하고 중국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재편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대륙진출을 노리던 일본이 가세하여 청일전쟁(中日甲午戰爭)을 일으켰고 이 전쟁에서 청나라는 패배하고 말았다. 그 결과 1895년에 체결된 마관조약(馬關條約)의 제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청나라는 일본인이 개항장에서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제국주의 열강도 최혜국조항에 따라 이를 균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은 일본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지만 방직공장 설비의 도입과정에서 청나라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던 서구 열강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일본의 구상이 배경이 되었다.

이제 열강들은 청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공장들을 세웠으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면방직업이었다. 이렇게 대규모의 면방직공장이 많이 설립된 이유는 첫째, 제국주의 열강들은 초과 생산된 자국 면방직제품의 소비시장과 원료공급지로서 청나라를 주목했다. 자국에서 초과 생산된 면방직제품을 중국에 비싸게 팔고 중국의 저렴한 원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둘째, 자국의 과잉된 면방직 자본의 투자처로 청나라를 선택했다. 즉 직접투자를 통해 청나라에서 면방직공장을 세우는 것은 풍부한 원자재를 직접 이용하여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었고 일상 생활용품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면제품을 많은 청나라 사람들에게 직접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자 했다. 셋째, 면방직공업은 기술적 특성상 상

대적으로 기계화하기 쉬운 공업이었다. 따라서 기술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면방직공업이 공업화 초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한 분야였다. 당시 청나라의 공업은 제국주의 열강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으며 기계의 효율성이나 노동자의 기술력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에 청나라에 대규모 면방직공장들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중국에 진출했던 서구열강은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투자여력을 상실했고 이 빈자리를 일본자본이 차지했다. 당시 일본 방직자본이 청나라에 설립했던 면방직기업을 ‘재화방’(在華紡)이라고 한다. 이들 재화방은 그 투자규모를 급속하게 늘려 1936년 당시 만주를 제외하고 중국에 투자된 일본의 직접투자액 8억 4천만 엔 가운데 3억 엔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내 직접투자의 대표적인 부문이 되었다. 재화방은 전성기인 중일전쟁기(1937~1945)에 중국의 면제품시장을 거의 완전하게 제패했다.

이런 일본 방직자본의 투자는 특히 상해(上海)에 집중되었다. 재화방이 상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된 이유는 첫째, 상해가 연해도시(沿海都市)라서 제국주의 열강들이 처음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주로 상해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과거의 운송수단은 주로 선박이었고 연해도시인 상해는 운송의 편리성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자본은 우선적으로 상해에 진출하여 공장을 세웠다. 둘째, 중국의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상해는 중국 경제발전 과정의 핵심적 역할을 맡아 왔으며 국제무역의 발원지라고 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한 부문의 공장들 대다수가 상해에 있었으며, 중국 민족공장들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이 투자한 공장들도 상해 지역에 많이 세워졌다. 셋째,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조계(租界)가 상해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소유 공장들이 거의 상해 조계에 있었으며,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외국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해 주변의 지역은 생산에 필요한 풍부한 원자재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수의 노동자들을 부양할 수 있는 소비물품도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었다.

그동안의 중국 근대 면방직업사에 대한 연구는 중국이 서구 제국주의침략을 받는 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49년 이전에 반봉건·반식민지(半封建·半殖民地)의 개념은 다른 나라에 볼 수 없는 중국의 특수한 사정이었다. 청나라 말기에 정부는 부패와 무능 때문에 자본주의 열강들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했으며 그 결과 중국 전체가 서구 열강의 강력한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제국주의시기의 일반적인 연구 경향인 민족자본과 제국주의자본과의 갈등과 대립, 즉 대표적인 공업인 방직업에 관한 연구에서도 중국방직자본과 일본방직자본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관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근대 면방직업에 관한 연구를 크게 ‘쇠퇴론’과 ‘발전론’으로 구분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각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방직자본의 내적 역량을 강조하는 견해와 외적 환경을 강조하는 견해로 다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 입장의 대표적인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쇠퇴론적 입장에서 보면 첫째, 내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견해로 방현정(方顯廷)과 도일랑(島一郎) 등을 들 수 있다. 방현정(1934)은 민족방직자본을 쇠퇴시키고 정체시킨 것은 기업의 부족한 자본, 부실한 경영, 낮은 노동생산성 등이었으며 면제품 수입과 재화방의 압박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도일랑(1978)도 민족방직자본이 쇠퇴하게 된 이유로 부족한 자본, 과도한 경영규모, 부실한 설비, 낮은 노동능력 등을 강조하였다.

둘째,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견해로는 우좌미성차랑(宇佐美誠次郎), 죽본황(竹本晃), 엄중평(嚴中平) 등을 들 수 있다. 우좌미성차랑(1941)은 중일 양국이 정치적으로 충돌하였기 때문에 중국방직업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죽본황(1977)은 재화방이 일본의 대방적회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재정적 지원과 일본 정부나 군 당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민족방직자본은 세계공황, 9.18사변(9.18事變), 1.28사변(1.28事變), 노구교사건(蘆溝橋事件) 등의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쇠퇴했다고 보았다. 엄중평(1955)은 민족방이 쇠퇴한 이유로 9.18사변 이후 동북시장의 상실, 공황으로 농촌의 구매력 붕괴, 경영악화로 조업 단축과 도산, 은행자본의 간섭 등을 들었다. 이희경(李熺璟)(1983)은 “전통적인 수공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붕괴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면서 청나라 말기에 일부 발흥했던 면방직공업도 “중국의 경제여건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면방직공업은 제대로 정착·발전할 수 없었다”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잠시 주춤한 과정에서 발전했던 민족방이 전후 서구 열강의 복귀로 다시 “경쟁능력을 상실하여 대부분 도산”하는 등 “중국자본공장은 자본의 부족과 높은 금리, 열강의 면제품유입과 중국 국내에서의 공장설립을 통한 노골적인 경제침략, 그리고 공장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능력부족 등 각종 요인으로 항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았다. 김지환(1992)은 재화방과 민족방의 경쟁은 ‘공장대 공장의 사적인 경제문제’는 아니었으며 ‘일련의 침략체제에 대한 민족체제의 대항문제’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재화방은 중국 민족방에 대해 침략적 성격을 가지고 이를 억압하며 발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족방의 발전을 저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후 김지환(2006)은 면방직공업의 3대 발전기의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경험과 성격을 다루면서 1차 세계대전과 중국공업경제의 발전, 중일전쟁 후 상해의 ‘고도변영’,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공업경제의 발전이 ‘모두 전시 호황에 편승한 단기적이며 기형적 성격을 갖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와 ‘외부적 환경변화에 의해 언제든지

도 붕괴될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발전론적 입장에서 보면 첫째, 내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견해로는 조강(趙岡), 국지민부(菊池敏夫), 구보형(久保亨) 등을 들 수 있다. 조강(1977)은 공황 이후 계속된 중국 민족방의 조업단축, 파산 등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중국 면업의 쇠퇴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재편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쇠퇴론을 반박하였다. 즉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민족방 중에서 건실한 기업은 확충을 계속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공장은 파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함으로써 이 시기를 오히려 민족공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재편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지민부(1988)는 민족방직자본이 쇠퇴한 것은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발전한 사례들도 확인하였다. 구보형(1986)은 민족방과 재화방의 이윤율이 1930년대 중반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재화방이 민족방을 일반적으로 앞서지 못했으며 지역적 환경이나 경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발전론 중에서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견해는 방직자본가의 영향력과 주도성을 강조하는 견해와 면업정책과 은행자본의 간섭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연구로 대별된다. 먼저 방직자본가의 영향력과 주도성을 강조하는 연구로는 부시(Bush), 반총정(飯塚靖), 부택방아(富澤芳亞) 등을 들 수 있다. 부시(1982)는 민족방직자본의 자본가들이 국민당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킴으로써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총정(1986)은 남경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면맥차관 도입을 통해 민족방직자본가의 주도성을 실증했다. 부택방아(1995)는 통세개정(統稅改正)의 입법과정에서 민족방직 자본가의 역할을 분석하여 이들의 영향력과 주도성을 검증하였다. 반면에 면업정책과 은행자본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길전홍일(吉田宏一), 부택방아 등을 들 수 있다. 길전홍일(1979)은 민족방과 재화방 간의 설비증가율의 차이가 민족방직자본 쇠퇴의 결정적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택방아(1994)는 중국은행을 비롯한 은행자본이 개입하여 경영이 개선된 사례를 통해 면업정책과 은행자본의 긍정적인 측면을 증명했다.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쇠퇴론에서 내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견해는 주로 민족방직자본의 자본 부족, 과대한 경영규모, 방만한 경영, 낮은 노동생산성, 부실한 설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쇠퇴론에서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수입면제품의 유입, 재화방과의 과당경쟁, 면제품시장의 붕괴성, 동북시장의 상실, 공황으로 인한 농촌 붕괴, 경영악화로 인한 조업단축이나 도산, 은행자본의 간섭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비해 발전론에서 내부요인을 강조하는 견해는 민족방직자본이 외형상으로는 쇠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발전을 위한 재편과정이었으며, 민족방직자본이 지역적으로나 경영환경

상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쇠퇴하지 않고 발전했던 사례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발전론의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견해는 민족방적자본의 자본가의 적절한 개입, 국민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일본자본의 경쟁 요인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표 1〉 민족방과 재화방의 대립과 갈등 결과에 관한 견해 비교

대립구도 강조점	쇠퇴론	발전론
내적 역량	方顯廷과 島一郎	趙岡, 菊池敏夫, 久保亨
외부 환경	宇佐美誠次郎, 竹本晃, 嚴中平	Bush, 飯塚靖, 富澤芳亞 吉田宏一, 富澤芳亞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민족방과 재화방의 대립구도 자체가 오히려 연구의 한계를 초래한 것으로 보았다. 즉 대립구도에서 나타나는 ‘쇠퇴’와 ‘발전’이라는 극단론에서 벗어나 재화방이나 민족방이 중국경제의 변화에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했는가를 정리해야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가 민족방과 재화방의 선악적인 구도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 논의는 두 자본이 자본축적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기업 일반의 목적에 충실했던 기업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서 있다. 즉 민족방이거나 재화방이거나 자본축적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기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20세기 초 청나라의 몰락시기부터 국민정부 시기를 거쳐 신중국 시기까지 그 모습을 변화하면서 연속되거나 단절되었지만 이들의 목적은 자본축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재화방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논문과 미 발굴 자료를 포함한 중국 소재 1차 자료를 활용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1차 자료는 국민정부(1912년~1949년)가 생산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보존소인 역사당안관(歷史檔案館 - 上海市 檔案館, 南京 中國 第2歷史檔案館, 經濟部, 工商部 全國 花布部 管理委員會 等) 소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시기는 1890년부터 1949년까지이다. 먼저 1890년이 기점이 된 것은 1890년 이전에는 중국에서 자금투자에 머물렀던 일본자본이 1890년 이후에는 직접투자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49년이 종점이 된 것은 신중국이 성립됨으로써 국민당 정부가 2차 대전 이후 재화방을 접수하여 운영했던 시기가 종결되기에 2차 대전 직후 적산이었던 재화방의 재편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재화방의 설립과 발전(1890~1937년)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중일전쟁기 재화방의 운영(1937~1945년), 제4장에서는 2차대전 직후 재화방의 재편에 대해 살펴본 후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결론을 맺었다.

## II. 재화방(在華紡)의 설립과 발전(1890~1937)

### 1. 마관조약의 체결과 재화방의 설립

1880년대 초부터 개항장에서 근대면방직공업의 맹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열강들과 중국 사이에 공업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기 시작하자 이홍장(李鴻章)<sup>1)</sup>을 중심으로 한 양무과 관료들은 외국인의 공장 설립을 강력히 저지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의 패배로 체결된 마관조약<sup>2)</sup> 제6조 제4항의 규정, 즉 '통상이 이루어지는 중국 항구에서 일본관원과 백성의 공예품 제조를 허락하고 기계 수입은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바치면 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일본은 공장설립권을 획득하였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도 특혜국 대우를 주장하며 서로 경쟁하듯이 공장설립권을 인정받았다.

최초로 중국 개항장에서의 공장설립권을 획득하게 된 일본은 직접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상해에 동화공사(東華公司)를 설립하여 본국에서 중국으로 제품을 가져와 판매하였다.<sup>3)</sup>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은 일본 정부가 면화 수입세와 면사 수출세를 면제함으로써 면방직공장을 일본에 설립하여 중국으로 면사를 수출해도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방직

1) 중국 청말의 정치가. 청말 주요 외교문제를 장악하고 以夷制夷로 열강들을 서로 견제시키면서 양보·타협정책을 취했다. 시모노세키조약, 청·러밀약, 베이징조약 등에 관여했으며 근대공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했다.

2) 1895년 4월 17일에 下關에서 조인되어 5월 10일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1894년 8월에 시작된 청·일전쟁의 강화조약으로 본문 14개조로 이루어졌으며 정식명칭은 '청·일양국강화조약'이다. 청국의 李鴻章과 일본의 伊藤博文이 체결하였다. 내용을 보면 1)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 2) 청국은 遼東半島와 臺灣 및 衝湖島 등을 일본에 할양한다. 3) 청국은 일본에 배상금 2억 냥을 지불한다. 4) 청국의 沙市·重慶·蘇州·杭州의 개항과 일본 선박의 揚子江 및 그 부속 하천의 자유통항 용인, 그리고 일본인의 거주·영업·무역의 자유를 승인할 것 등이 규정되었다. 이 중 요동반도의 할양에 대해서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3국이 일본에 반환을 요구(三國干涉)하자 일본은 청국으로부터 3,000만 냥을 받고 요동반도를 반환하였다.

3) 雷麥은 일본 측의 자료를 근거로 "1897년 이전에 일본은 중국에서 투자하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아무 것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雷麥, 1959. 外人在華投資. 商務印書館. p.309).

자본은 중국에서 직접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국내에서 설립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자본주의 열강들 즉, 미국, 영국, 독일 등은 1897년 상해에 면방직공장을 설립하였다. 이 공장들은 처음 2년간 3~4%의 이익을 배당할 수 있었지만 1899년부터 불경기가 시작되자 이익배당을 못하게 되었고 공장 설립의 열기는 시들게 되었다.<sup>4)</sup>

하지만 일본에서는 1895년부터 1903년까지 면방직공장들이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방추 수가 58만 추에서 138만 추로 증가되었고 면사생산량도 36만담에서 80만담<sup>5)</sup>으로 늘어나면서 외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까지 갖추어졌다.

1895년 9월에 삼정재벌(三井家族)은 중연방직(鍾淵紡織), 삼정물산(三井物産)을 통해 상해에서 현지조사를 한 후 공업부의 제안을 참조하여 자본금 100만 엔의 회사를 설립하고 25만 엔을 투자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런 계획은 그 해 10월에 상해방직주식회사(上海紡織株式會社)를 설립하기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고 1902년 중국인 소유의 공장을 매수하여 본격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표 2〉 초기 상해 지역의 대표적인 재화방

名稱	成立日期	資本金	規模	
			紡織機	織布機
上海紡織株式會社	1902	200萬兩	54,856	1,440
日華紗廠	1918	2200萬日元	53,056	500
鍾淵公大實業株式會社	1906	40萬兩	5,200	—

자료 : 上海紡織會社沿革(上海市 檔案館 檔案號, Q172-9-540), 日華紗廠歷史(上海市 檔案館 檔案號, Q192-1-1435), 鍾淵公大實業株式會社沿革(上海市 檔案館 檔案號, Q192-1-1434).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먼저 전쟁으로 커다란 이익을 획득하여 해외를 침략할 수 있는 풍부한 역량을 갖추었다. 또한 극동에서 세력균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 공간에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중국은 일본 재벌의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동양척식(東洋拓植, 1908년), 동아흥업(東亞興業, 1910년), 중일실업(中日實業, 1913년) 등 수 많은 회사가 설립되었고 일본 정부는 1915년 21條<sup>6)</sup>를 요구하고 1917~1918년

4) 嚴中平(1955) 中國棉紡織史稿, 科學出版社.

5) 張忠民(2008) 第一次世界大戰前日本棉紡織企業進入中國的路徑與特點. 上海經濟研究, p.123.

6) 일본 정부는 袁世凱가 황제가 되는 것을 지지하는 대가로 1915년 1월 18일에 청나라를 멸망시키는 21개 조건을 제시하였다.



서원차관(西原借款)<sup>7)</sup>이 이루어지면서 면업을 중심으로 일본 재벌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면공업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이익을 획득하였다. 1915년 11월부터 호황을 맞아 생산 제한 규정을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각 회사의 이익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일본 방직연합회 30여개의 회원 회사의 주식 배당률은 1915년 하반기에 15.5%, 1916년 23.5%, 1917년 41.1%, 1918년 47.7%, 1919년 51%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sup>8)</sup> 또한 방직공장들은 적극적으로 직기 설비를 증설하면서 방대한 자본을 축적하였다. 1914년에 방직연합회에 가입한 42개 회사, 157개 공장의 자본금은 85,820,424엔이었지만 1919년에는 54개 회사 190개 공장으로 늘어났으며 165,758,695엔의 자본금을 보유하였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면포는 중국시장에서 독점적인 우위를 차지하였다.

1차 대전 기간에 일본 면업계는 방직기계를 수입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을 통해 국내설비의 확장을 서둘렀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이 군수용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일본의 설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일본 자본은 중국에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1918년에 중국 정부는 세척 개정을 통해 일본 면사에 대해 1.96%에서 2.64%, 본색 면포(本色綿布 : 염색가공한 면포)는 1.63%에서 3.06%로 세율을 높이는 등 대부분의 면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열강의 면제품 유입은 감소되었지만 이런 상황은 일본상인들이 중국으로 진출하여 공장을 설립하도록 자극하는 조건이 되었다.

여기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국내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중국에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기반을 형성하였다. <표 3>은 이 시기 일본인 소유 공장의 설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재화방의 설비 추이

연도	紗錠	线錠	布機
1913	111,936	?	886
1919	332,922	?	1,486
1922	621,828	?	2,986
1924	932,728	?	3,929
1925	1,268,176	58,744	7,205
1927	1,291,974	77,632	9,625

7) 西原借款은 일본정부가 段祺瑞정부와 체결한 일련의 공개 및 비공개 차관의 총칭을 가리킨다.

8) 嚴中平(1955) 中國棉紡織史稿, 科學出版社.

연도	紗錠	綫錠	布機
1928	1,397,272	117,544	10,801
1929	1,462,160	185,484	11,467
1930	1,587,776	233,504	13,554
1931	1,715,792	232,236	15,983

資料：華商紗廠聯合會(1935) 中國紗廠一覽表；嚴中平(1955) 중국방직사고, p.177에서 재인용.

1917년부터 1931년까지 일본 자본과 채무관계를 가진 14개의 중국인 소유 공장은 채무상환능력이 없어서 일본 자본에 합병되었다. 그 주된 원인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번영을 맞이한 중국인 소유 공장이 설비를 확충하려고 무분별하게 차관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인 소유 공장이 차관을 도입하기로 계약할 때는 방직공장의 토지, 건축물, 기계설비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혹은 다른 중국인 소유 기업을 보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만일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채권자가 감독관을 파견하여 방직공장을 감독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시 중국인 소유 공장은 일단 부채를 갖게 되면 관리제도와 높은 이자율로 인해 대부분 부채상환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공장을 경매에 내놓거나 열강의 자본에 의해 합병되었다. 1917년부터 1931년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열강과 채무관계를 가진 중국인 소유 공장은 모두 22개로, 일본자본에 관계된 것이 14개, 영국자본과 관계된 것이 6개, 그리고 미국자본과 관계된 것이 2개였다.<sup>9)</sup>

결론적으로 일본은 1919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방직자본보다 더 우수한 기술과 경영능력 및 생산관리기능,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중국인 소유 공장에 치명적인 압박을 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유럽열강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중국에 재진출하였지만 전쟁전의 지위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 2. 만주국의 설립과 재화방의 위축

세계공황으로 국제시장에서 은(銀)의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중국의 화폐는 평가절하되어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1931년부터 영국과 일본이 잇달아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은본위제를 채용함으로써 중국의 은이 해외로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금융시장은 위축을 당하게 되었다. 여기에 미국이 1934년 Silver purchase Act를 제정하여 열강의 은구매력이 더욱 높아져 자 은의 유출이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sup>10)</sup> 그리하여 중국에선 일부 대규모 은행을 제외하고

9) 嚴中平(1955) 中國棉紡織史稿, 科學出版社.

10) Albert Feuerwerker, 林載爵 譯(1978) 中國近百年經濟史(1870~1949), 華世出版社, 台北, p.106.

일반 금융기관은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국민정부는 1934년 10월 2.25%의 은수출세를 10%로 인상하고 균형세<sup>11)</sup>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균형세의 부과는 오히려 은의 밀수출을 증대시켜 금융공황이라는 더욱 심각한 상태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금융공황으로 1934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였고 신용대부도 회수되거나 제한되어 중국자본시장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 일본군은 1931년 무력으로 동북 3성을 점령하고서 그 곳에 만주국을 세웠다. 일본은 세관을 강탈하여 수입 세칙을 개정하고 중국 면제품의 동북지역으로의 관로를 막았다. 1926년부터 1930년까지 동북 3성(遼寧, 吉林, 黑龍江)의 평균 면사수입량 중에서 중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량의 77%, 면포도 총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인 소유 공장들에게 동북 삼성이라는 주요판매시장의 상실은 치명적인 손실이었다.<sup>12)</sup>

만주국은 1932년 9월 25일부터 신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을 독립국으로 간주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일본의 수출 상품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다. 동북 해관이 봉쇄되고 만주국에 귀속되자 국민정부는 막대한 세수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국민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 각지의 해관을 폐쇄하고 이중관세<sup>13)</sup>를 부과하였다.

이런 조치는 국민정부 지역에서 만주국으로 수출입되는 모든 화물에 부과하였으며 이를 어기면 항해권을 박탈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만주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은 중국 해관이 있는 항구에 기항할 경우에도 다시 수출세를 징수하였다. 결국 이중관세는 만주국의 수출입물품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무역의 규모를 위축시키려는 정책이었다. 이런 이중관세 조치는 동북 지방에 면제품을 수출하는 재화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이중관세에 대한 만주국의 구체적인 입장은 1932년 5월에 만철(滿鐵) 경제조사회의 제2부 공업반(工業班)에서 작성한 『방직공업대책요강(紡績工業對策要綱)』과 『방직공업대책안(紡績工業對策案)』에 잘 나타나 있다. 『방직공업대책요강』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만주국에서의 방직공업은 하급면제품의 생산으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면제품

11) 균형세란 Lodon의 은가와 상해의 환시세를 비교하여 중앙은행이 그 차액을 확정하는데 보통 그 차액은 세금으로 납입되지만 만일 부족할 경우에는 균형세를 징수하게 된다.

12) 嚴中平(1955) 中國棉紡織史稿, 科學出版社, pp.211-212.

13) 만주국에서는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세를 부과하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만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발행된 납세 증명서는 만주국에서 인정하지 않았으며, 만주국 관세청은 출입한 선박들에게 수출입세를 부과하였다.

은 모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

2. 만주국의 방직업자 및 면사, 포상 등 면업관계자는 방적연합회를 조직하여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3.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규의 수입세를 징수한다.<sup>14)</sup>

이 요강의 첫 번째 항은 만주국에서 생산되는 하급면제품 이외에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한다고 규정되어 재화방의 만주 수출을 곤란하게 하였다. 두 번째 항은 독자적인 방적연합회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독자적인 연합회 활동을 통하여 일본과의 연관관계를 강화하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세 징수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 알려지자 재화방은 1933년 5월 6일 총회를 개최하여 재화방 대련지부(在華紡大連支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정부에 이종관세의 완화를 재차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방적연합회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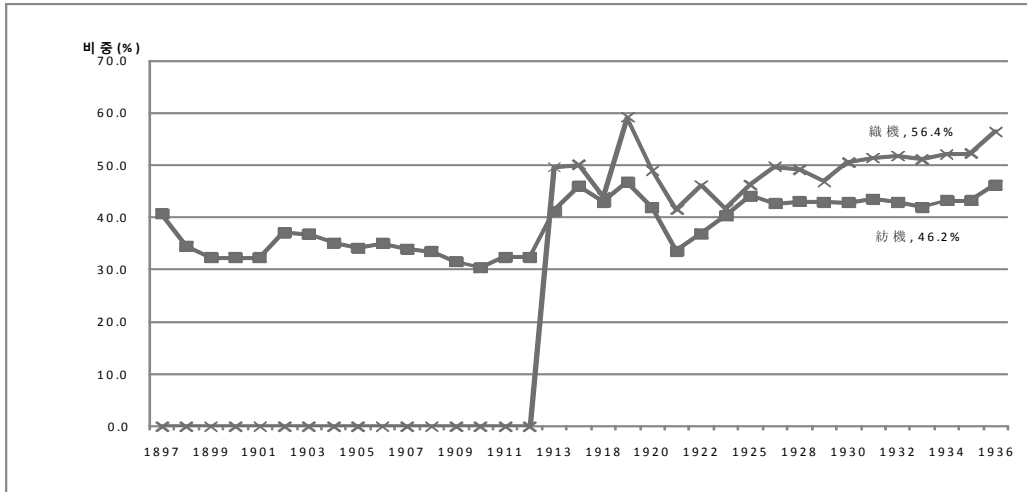
중국 면제품은 일본 면제품과 거의 동일한 종류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규정을 달리하여 일본 제품에 특종의 이익을 주도록 세율을 설정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당분간 일만협정세율에 따라 구별할 수밖에 없다...만주국을 승인하지 않는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률적으로 국정세율을 부과해야 한다.<sup>15)</sup>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화방이 보유하고 있던 설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전체 방직설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면사 생산을 위한 방적설비는 1897년부터 1912년경까지 중국 내 방적설비의 30~40% 수준을 유지하다가 1913년 이후에는 40%가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면포생산을 위한 직포설비는 1912년까지는 전혀 없었지만 1913년부터는 50%수준을 유지할 정도였다. 이것은 재화방의 공장수가 민족방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재화방은 주로 대규모 공장이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14) 김지환(1997) 1930년대초 중국 면제품시장의 구조와 재화방의 성격,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사총, p.229)에서 재인용.

15) 김지환(1997) 1930년대초 중국 면제품시장의 구조와 재화방의 성격,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사총, p.23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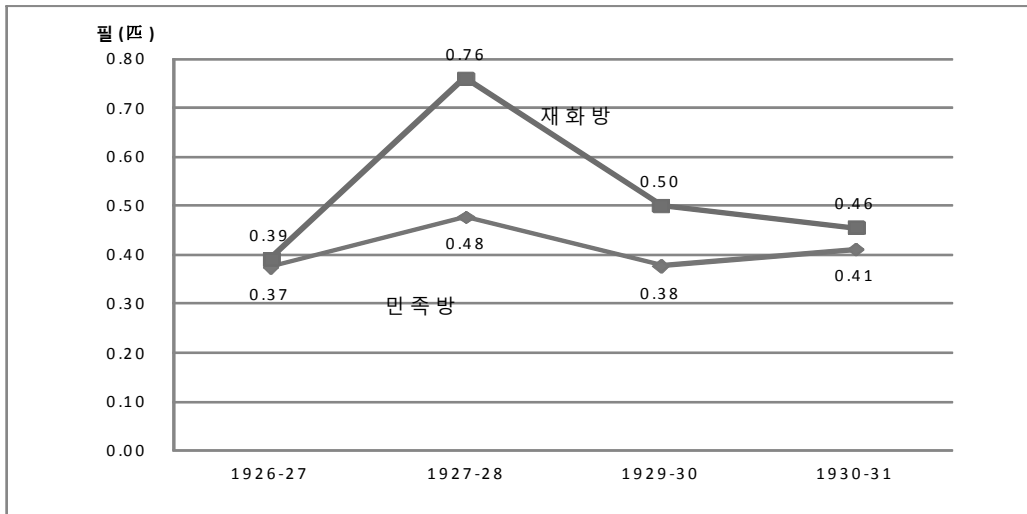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방직설비 중 재화방 설비의 비중 추이



자료 : 嚴中平 외(1955), 中國近代經濟史統計資料選輯, 科學出版社, p.136에서 작성.

이 설비들의 생산성을 검토해 보면 1926~27년에는 거의 동일했던 설비생산성이 1920년대 후반이 되면 민족방과 재화방의 생산성이 크게 차이가 벌어진다.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면 설비생산성이 서서히 비슷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민족방과 재화방의 설비 생산성 추이



자료 : 嚴中平(1957), 中國棉紡織史稿. 科學出版社; 陳真編(1966), 中國近代工業史資料 4卷, 三聯書店, p. 206에서 작성.

당시 재화방의 대표적인 회사는 내외면주식회사(內外綿株式會社)였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중국에 진출하여 재화방 가운데에서 420,960추의 설비를 갖추어 가장 규모가 컸으며 상해(上海), 청도(靑島), 금주(金州) 등 중국에 14개의 공장을, 일본에 1개 공장을 두고 있었다.<sup>16)</sup> 또한 상해방직(上海紡織)은 상해에 설립된 최초의 재화방으로서 225,640추의 방추를 보유하여 세 번째로 큰 회사였다. 내외면은 중국과의 무역에 종사하고 있던 일본면화주식회사(日本棉花株式會社)의 투자회사였으며 상해방직은 삼정물산 및 동양면화의 투자회사였다. 이들 회사는 일본 내부와의 생산적 연계가 없는 상사계(商社系)였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이익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었다. 따라서 만주시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들 회사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이 될 수밖에 없었다.

### Ⅲ. 중일전쟁기 재화방의 운영(1937~1945)

#### 1. 전쟁 피해와 복구<sup>17)</sup>

1937년 7월 7일 북평 교외에서 발생한 노구교사건을 빌미로 중일전쟁이 발발했다. 노구교 사건 직후 북평·천진 지역에서 공방이 지속되었지만 일본군은 7월 28일부터 총공격을 감행하여 이 지역을 점령했다. 또한 8월 9일에는 상해에서 일본 육전대(陸戰隊)의 대산(大山) 중위가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13일부터는 상해에서 양국군의 전투가 개시되면서 전쟁이 확대되었다. 11월 5일 유천병단(柳川兵團)의 항주만(杭州灣) 상륙작전을 계기로 중국군이 퇴각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격렬한 시가전과 공습이 이루어졌다.

이 중일전쟁으로 인해 중국 각지의 재화방은 지역별로 여러 피해를 입었다. 천진의 재화방은 피해가 거의 없었으며 8월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공장들이 조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상해의 재화방은 8월에 극도로 위축되었으며 13일부터 교전이 시작되자 생산을 중단하였다.

상해의 황포강 동쪽 연안의 공장들은 폭격을 받아 대일본방직(大日本紡織)·상해방직·동화방직(東華紡織)·유풍방직(裕豐紡織)의 각 공장이 일부 파괴되었다. 일화방직 포동공장(日華紡織 浦東工場)은 기계가 탈취되고 소실되었으며, 오송(吳淞)의 화풍공장(華豐工場)도 크게

16) 1931년 10월 당시 내외면이 일본에 보유하고 있는 공장은 방추수 3만3천추의 소규모공장에 지나지 않았으며 총 생산설비의 92%를 중국에 보유하고 있던 회사였다(김지환(2005), 중국 국민정부의 공업정책, 신서원, p.82).

17) 피해와 복구과정에 대해서는 高村直助(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pp.263-266 참조.

파괴되었다. 또한 소주하(蘇州河) 연안의 풍전방직(豊田紡織) 공장도 방화와 약탈로 전소되었다. 전투과정에서 상해의 재화방은 전체 방직기(紡績機)의 16.7%(22만 7,556추), 연사기(燃絲機)의 11.9%(4만 920추), 직포기(織布機)의 24.9%(4,341대)가 피해를 입었다. 1936년 재화방의 총투자액은 3억8,100만 엔이었는데 피해액은 건물 3,370만 엔, 기계 6,408만 엔, 원료, 제품 4,448만 엔, 기타 486만 엔 등을 합쳐 총 1억 4,713만 엔에 달했다.

전후 복구를 위하여 마련된 제1기 부흥계획의 규모는 전체 파괴된 설비의 67.0%에 상당하는 86만 8,656추였으며 복구비용으로는 총 6,350만 엔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중일전쟁으로 일본에서 자재와 자금의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방직업이 비중점사업으로 정해지자 일본 정부가 방직업에 대한 경비 책정을 승인하지 않아 실제 집행된 규모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전체 복구계획의 80.0%인 69만 5,043추가 복구되어 파괴된 설비의 53.6%만이 복구되었다.

1937년 8월부터 휴업했던 상해의 재화방은 1938년 1월부터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상해의 재화방은 전쟁의 피해를 본 청도나 한구를 넘어설 수준의 설비를 보유하게 되었다. 전후 복구 및 확장이 거의 완료된 1940년 4월에 방추수로 환산한 재화방 설비는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0.04% 확대되었다. 더구나 재화방은 많은 민족방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더하면 정방기가 355만여 추나 되었다. 이 정도의 설비규모는 설비규모가 최고 수준이었던 1938년 일본 국내 설비의 31% 수준에 이를 정도의 큰 규모였다.

한편 중국인들이 소유했던 방직 공장들도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전쟁 이전에는 94개 공장에 269만 4,816추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65.4%가 일본 측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다. 반면에 조계 내(개전 후 조계 내 이전, 명의상 영·미 국적을 포함)에 18.0%, 비점령 지구에 6.6% 만이 중국인 소유로 남아있었다. 파괴와 신·증설을 제외한 1939년의 상황은 아래의 <표 4>와 같다.<sup>18)</sup>

<표 4> 중국자본 방직공장의 설비 상황(1939년)

1939년 말 현재

공장 유형	공장 수	설비 수(추)	비고
일본의 군 관리, 위임경영 공장	54	1,646,352	화북 12공장 : 220,984추, 화중 40공장 : 1,317,208추
일본에 매수, 합병된 공장	3	115,164	

18) 多穀 “事變後の支那における紡績業” : 名和統一, “戰時支那紡績業の動向と其の問題”(大日本紡績連合會, “東亞共榮圈と纖維産業”). 高村直助(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p.267 재인용.

공장 유형	공장 수	설비 수(추)	비고
조계 안의 민족자본 공장	16	485,236	천진 3공장 : 64,152추, 상해 13공장 : 421,084추
동향 불명의 공장	11	270,696	
비점령지구의 공장	10	177,368	
합계	94	2,694,816	

주 : 高村直助(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p.267에서 작성.

비점령 지구에서는 점령지구로부터 설비의 반입과 신·증설이 이뤄졌는데 중경정권(重慶政權) 아래에서의 설비규모는 약 30만 추 정도로 추산되며 면사생산은 1940년에 겨우 3만 곤 수준이었다. 점차 증가하기는 했지만 가장 생산량이 많았던 1943년에도 11만 7천 곤으로 전쟁 이전인 1936년 중국인 소유 방적공장 생산량의 7.5%에 불과했다.<sup>19)</sup>

이와 같이 중일전쟁을 계기로 중국 민족방의 영향력은 축소된 반면 재화방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다. 더구나 1937년 10월 이후 일본에서 엔블럭으로의 수출이 외화를 획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점차 규제가 강화되자 재화방은 일본제품과의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커졌다.

## 2. 일본군의 방적공장 점수와 반환

일본군은 1941년 12월에 태평양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각 조계에 진주하여 적국 계열의 공장·은행 등의 자산을 점수했다. 상해 조계에 있는 영·미 국적의 16개 방적공장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 공장들은 ‘신적산(新敵産)’으로 분류되어 군의 명령에 따라 재화방이 이들 공장의 자산관리를 담당했다.<sup>20)</sup>

이 조계 안의 방적공장 가운데 실질적으로 영국자본 계열의 ‘순적성공장(純敵性工場)’은 4 공장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중국자본 공장이 명목상으로만 영국 국적으로 등록해 둔 공장들이었다. 따라서 이 가운데 7개의 공장은 “이후 개전을 선언하고 일본 측에 협력한다는 조건”<sup>21)</sup>을 제시하면서 1942년 5월에 군 관리에서 해제되었다. 반면에 이 시기에 구적산(舊敵

19) 嚴中平 외(1955) 中国近代经济史统计资料选辑, 科学出版社.

20) ‘新敵産’이란 중일전쟁 이전의 ‘舊敵産’과 구별하기 위한 명칭이다. 水谷, 上海經濟の再編成.

21) 在華日本紡績同業會大阪本部(1943) “擬裝敵性工場一覽表御送付ノ件”, 中支工場, 同業會資料.(高村直



産)으로 분류되었던 위임경영 공장들은 단 2개의 공장만이 반환되고 1개의 공장은 재화방에 매수, 4개의 공장은 재화방에 합병되었다.

그러나 흥하원(興亞院)을 대신하여 대동아성(大東亞省)이 설치된 1942년 11월 무렵부터 '대중신정책(對中新政策)'을 통해 왕정위(汪精衛)정권을 전면에 내세워 중국 측의 협력을 기반으로 현지군의 자금을 위한 물자 확보와 점령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려는 구상을 실행하였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일체의 군 관리공장이 조건없이 반환되었다. 그리고 위임경영을 해제할 때 이익금은 "군 관리공방의 경영에 따른 이익금은 원칙적으로 수탁경영자와 원 소유자에게 각각 1/4씩을 배분하고 나머지 액수는 중·일 양국정부에 절반씩 귀속시키기로"<sup>22)</sup> 결정함으로써 재화방도 1/4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1942년 6월 상해제조건설사를 개칭한 중연공대실업(鍾淵公大實業)은 5개의 위임경영 공장 중의 하나로 강북공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1943년 7월에 5개 공장을 반환한 이후에 이 공사의 이익금 8천만 원 가운데 자신의 몫으로 받은 금액을 소유자와 함께 기부했다. 왕정권의 육해군관리공장정리위원회는 이 자금을 가지고 11월에 면화의 증산을 위한 연구기관인 강북종합연구소를 발족시켰다.

한편 9개의 '신적산공장'은 1943년 3월에 왕정위 정권으로 이관된 후 실질적으로 중국인 소유였던 5개 공장은 6월경에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4개의 영국자본 공장은 실질적으로 일본 측이 지배하였다. 이화방직(怡和紡織)의 3개의 공장 가운데 이화공장(怡和工場)은 삼릉조선(三菱造船)이 경영했고, 양수포공장(楊樹浦工場)과 공익공장(公益工場)은 영(營)1627부대가 병기공장과 재단공장으로 사용했다. 윤창공장(綸昌工場)은 중연공대실업(鍾淵公大實業)이 경영하였다.<sup>23)</sup>

### 3. 경영 통제

전쟁 초기에는 면업에 대해 별다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일본계 통화인 군표의 가치를 유지하고 일본군의 비점령지역과의 물자이동을 금지시키기 위해 통제가 확대되었다. 1939년 군표의 가치가 폭락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횡빈정금은행(橫濱正金銀行) 상해지점을 활용하였다. 실제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군표의 가치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은행을 통해 법폐를 확보하여 지출하는 방안으

助(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p.322.)

22) 「上海會議錄」(1943.11.24).

23) 高村直助(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pp.322-324.

로 재화방을 활용했던 것이다. 즉, 상해의 재화방 9개 회사는 원칙적으로 매월 합계 3백만 원의 법폐를 연 1.5%의 금리로 예금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군 경리부가 필요에 따라 이 법폐를 사용할 때에 시가에 따라 엔(군표)예금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재화방이 이 엔 예금을 인출할 때에는 일본으로의 송금·국채매입·정기예금대체 등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sup>24)</sup>

당시 재화방은 중국과 일본 모두를 이용하는 양면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중국 측에는 일본군의 비점령 지역으로 면사포를 공급함으로써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법폐를 사용함으로써 법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일본 측에도 비점령지역에 면사포를 공급하여 이 지역 민족방의 성장을 억제하고 국민정부 측의 법폐를 흡수하여 일본군의 물자 조달자금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sup>25)</sup>

이와 더불어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군은 중경의 국민정부 측으로 가는 물자공급로인 원장(援蔣)루트를 차단하여 보급로를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1940년에는 남령(南寧)과 의창을 점령하여 국민정부 측 물자의 공급망을 차단하였다. 1940년 6월에 경리부 상해출장소(통칭 7호사무소)를 설치하여 상해의 물자 반·출입을 통제하였다. “면화의 반입은 철저히 우리가 점거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하며, 또한 일본 측 방적회사(관리공장을 포함)에서 구입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sup>26)</sup>에만 허가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은 조계를 경유하여 국민정부 측에 대량의 면사포를 공급해 온 상해 방직업계에 큰 타격이 되었다. 1940년 5월초 면사가격은 1곤당 1,760원에 달했으나 6월에는 800원으로 급락하면서 불황에 빠져들었다. 이에 재화방은 조업 단축을 했지만 판로가 더욱 줄어들어 불황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나 조계 내의 민족방은 새롭게 개발된 향소루트와 프랑스령 광주만 루트 등을 경유하여 반출되는 물자가 다시 증가함으로써 연말이 되면 설비를 최대한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1944년에는 민수용 제품의 처분조차 금지되었기 때문에 재화방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채 조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매와 이동의 금지보다도 공장운영에 직접적인 문제가 된 것은 면화의 부족이었다. 1943년부터 이미 면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

24) 高村直助(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p.296.

25) 名和, “戰時支那紡績業の動態及其の問題”.(高村直助(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p.295.)

26) 總軍第七號上海出張所, “棉花搬出入許可取扱要領”, 中支那棉花問題=關スル件(2). 그러나 실제로는 “嘉定·南翔의 면사포, 嘉定·太倉 등의 면화가 모두 야간에 자전거나 자동차에 몰래 실려 조계로 반입되는 것 같다. 이 경우 매차 100元을 내기로 工部局巡捕와의 사이에 양해가 있었던 것 같다.” (저자미상(1940) “中通特報” 제840호, 上海情報(4), 同業會 자료. (高村直助(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p.298.)

해의 방직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외국면화 10여만 담을 일본에 공급하면서 면화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1943년 12월에 상해 재화방의 설비 운전율은 15.2%에 불과했으며 조업률도 6.5%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원면문제 때문에 조업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재화방의 요청에 따라 1944년 2월에 일본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던 면화 중에서 16여만 담이 현지 가공용으로 대체되어 재화방에 할당되었다.<sup>27)</sup>

이 무렵부터 대부분의 상해 재화방 공장은 일본군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되었다. 즉 1944년 2월부터는 일본군의 지정을 받은 공장들이 상해군수용면사포제조납입조합(上海軍需用 綿絲布 製造納入組合)을 결성하고 이 조합이 각 회사 공장을 차용하는 형식을 통해 군수품을 제조하였다. 3월까지 지정된 재화방의 방직공장은 5개 회사의 11개 공장으로 설비는 총 379,776추였다. 이어서 4월에는 해군의 지정을 받은 공장이 해군섬유제품협력회(海軍纖維制品協力會)를 결성했는데, 지정된 방직공장은 5개 회사의 10개 공장으로 설비는 총 234,132추<sup>28)</sup>로 상해 재화방 방추의 41.7%가 군 지정공장이 된 것이다.

군 지정공장, 특히 육군군납조합의 경우에는 재화방을 경영상의 주체로 전혀 인정하지 않아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945년 5월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내외면 상해본부의 부근에 위치한 내외면 공장들은 육군군납조합이 관리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는 으레 어림잡아 3~4만 추 정도로 보이는 방직기가 한쪽 구석으로 치워져 있었고, 그 뒤에는 미싱이 설치되어 있어 수십 매나 되는 카키색의 운제포(雲齊布) 원단을 기계로 재단하여 군복을 만드는 봉제공장으로 변모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소주하 부근에 위치한 동흥복조(同興福祖) 공장이었다. 이 곳은 원래 동흥방 제2공장으로서 4만2천추를 소유한 방직공장이었다. 이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직기는 눈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으며 대신에 끈이 달린 군용화가 생산되고 있었다. 또 한쪽에서는 공장바다에 거적을 깔고 재해를 입은 사람이 난민꼴을 하고 피죄죄한 어린아이·할머니·노동자의 가족 등이 어지럽게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날의 화려한 재화방의 잔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sup>29)</sup>

상해에서도 1944년 군 지정공장이 된 시기부터 방직기계의 공출이 시작되었다. 상해 재화

27) 高村直助(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pp.336-337.

28) 高村直助(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p.337.

29) 有田(1980) “華北紡織工業會さめつて(5)”, 日本紡績月報(第403號), p.58 (高村直助(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p.338에서 재인용.)

방 앞으로 할당된 수량은 설철(屑鐵) 18,000톤 분량에 해당되는 방적기 60만 추였다. 그리고 이 설비를 공출한 결과 상해 재화방의 설비는 1백만 추를 밀돌게 되었다. 1945년에 들어서면서 미군의 상륙에 대비하여 설비의 화복소개를 준비하기도 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 4. 원료 및 상품 통제

태평양전쟁기 이전 중일전쟁기의 면화통제는 비교적 느슨하게 이루어졌다. 상해지역의 면화에 관해서는 “군의 지령에 따라 화중에서 생산된 면화를 구입할 목적”으로 1938년 8월 화중 재화방 10개 회사와 일본 면화 상사 8개 회사로 이뤄진 ‘중지면화협회(中支棉花協會)’가 결성되었다. 이후 1938년 10월에는 일본군이 상해로의 면화이동을 금지했으며 중지면화협회에 지시하여 군수용 면화 10만 담을 구입하도록 했다. 1939년산 면화에 대해서 군수용으로 45만 담을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중지면화협회는 장강 중류지구에서 5만 담만을 사들이고 나머지는 상해지구에서 재화방의 매입 분 가운데 5%를 지정가격으로 매입했다.

당시 상해 근방에서 면화의 매입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배일운동의 영향으로 치안문제가 있었고 생산지 부근의 소규모 조면공장의 출현으로 시중에 나오는 물량이 감소되었다. 더구나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강소·절강·안휘 3성의 면화생산은 전쟁으로 인해 해마다 감소되었다. 기존에 유입되던 화북면화도 화북·화중의 분리정책 때문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없었다. 상해로 이입되는 면화 가운데 일본상사가 매입한 분량은 전체의 10% 수준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주로 상해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상해에서는 외화전환성이 있는 법폐를 사용하여 외국의 면화를 수입할 수 있었다. 상해 재화방의 면화소비량 중에서 수입 외국면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935년의 28.9%에서 1939년에는 66.5%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따라서 면화의 수요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법폐의 대외가치가 유지되자 수입면화의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1940년에 들어서면 화북면화의 수입이 곤란해지고 국제 정세가 악화되어 외국면화의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중지면화협회(中支棉花協會)는 “군 및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중지면화의 일원적 매입 및 배급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상해면화의 구입과 분배를 통제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1년까지 외국면화의 수입은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1940년에는 73.5%, 1941년에는 57.9% 수준의 외국면화 의존율을 유지하였다. 1941년 봄에 “재화방은 적어도 올해 사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의 원면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할 정도였다. 따라서 비록 면화의 수매가 부진하기는 했으나 1941년까지는 면화통

제로 인해 조업에 제약을 받는 사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sup>30)</sup>

1941년 7월에 영국과 미국의 대일자산 동결에 따라 외국면화 수입이 두절되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화방의 면제품 수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명령이 떨어졌다. 여기에 10월에는 왕정위정권에 의해 면제품의 수출이 허가제로 바뀌어 사실상 금지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외국 수입면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상해의 재화방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이때부터 중지면화협회는 화중연락부가 승인한 지정가격으로 화북면화를 독점적으로 수매했다. 수매된 민수용의 면화는 일본과 재화방에 같은 수량을 배분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중지면화협회로부터 구입한 면화는 방추수 별로 할당하여 1담당 20엔(군포)의 조정료를 부담<sup>31)</sup> 하는 조건으로 실세가격에 준하여 각 공장에 배분되었다. 이 때 부터는 재화방이 중국상인으로부터 직접 면화를 매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원료가 완전하게 통제되었다.

면화가격도 일본군의 조정명령에 의해 조정되었으며 일부지역의 면화는 군수용으로 전용되었고 일부는 일본으로까지 보내짐으로써 상해 재화방의 면화수급은 곤란을 겪게 되었다. 그 결과 상해 재화방의 조업률은 1942년 상반기에는 40%이하로, 하반기에는 30%이하로 급속하게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1942년에 들어서면 중국상인들을 동원하여 면화수매를 진행하였지만 공정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가 심각해지자 수매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면화를 확보하지 못하자 재화방의 조업률은 1943년 5월에 20%이하, 12월에는 10%이하 수준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1943년 1월에 화중의 물자유통통제기구로 전국상업통제총회가 설립되었고 산하에 면업전업위원회가 면업 통제를 담당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일본 측이 구성한 화중일상면화동업연합회(華中日商綿製品 同業連合會)와 중국 측이 구성한 소절환면화동업연합회(蘇浙皖棉花同業連合會)를 통제함으로써 면업을 통제하였다.<sup>32)</sup>

면화수매는 중국과 일본의 방직업자로 구성된 면화수매협회에 맡겨졌는데 민족방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직접 수매를 담당하고 일부는 면화상에게 하청을 주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재화방은 강북에서는 강북면화조합(江北棉花組合)에 하청을 주고, 강남에서는 개개의 면화상에게 하청을 주거나 혹은 직접 수매에 나섰다. 그리하여 10개의 공고(公庫)를 설치하고 각

30) 高村直助(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pp.292-300.

31) 中支棉花協會(1941) “中支棉花協會事務處理要領”, 中支棉割當ニ關スル件(5), 同業會자료.(高村直助(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p.325.)

32) 「華中綿業新機構」(1943.8) 華中綿業統制, 同業會資料.

공고마다 결정된 가격으로 면화를 수매하여 집하였다.

1944년 면화 수매는 동태부령지구(東台阜寧地區)·영파지구(寧波地區)·안경지구(安慶地區) 등에서는 일본군이 직접 수매를 담당할 정도로 면화수매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면통회가 면화를 수매할 때에는 전반적인 지도방침에 따라 중국과 일본의 군관이 일치하여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그리하여 수송·경비, 적의 방해배제 및 대적봉쇄 및 부정유출과 은닉의 방지 등을 위해 면통회의 요청에 따라 일본군에서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것”<sup>33)</sup>

그러나 일본군까지 동원되었음에도 면화의 수집량은 당초 90만 담의 계획량에 비해 1945년 1월말까지 겨우 15만 담에 불과할 정도로 계획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했다.

면사포는 1940년 9월 이전까지는 통제가 없던 상황에서도 전시수요의 불안정성 때문에 면사포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39년 9월에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인도나 남양 방면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더욱 급격히 상승하였다. 면화(通州棉)는 1937년에 비해 1939년에는 1.3배가 되었으며 면업 붐이 피크였던 1940년 5월에는 무려 5.7배에 달했다.

당시 재화방이 생산하는 면사의 대부분은 중국 국내에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생산된 것이었다. 따라서 생산된 면사는 면사 상인을 통해 조계로 반입되어 중국계 염색공장과 직포공장에서 가공되었다. 그러나 면업 붐 아래에서 면사의 생산은 자연히 증가되어 1939년에는 자가(自家)공장에서 생산되는 수량만으로도 1936년 수준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위임경영 공장을 더하면 1.4배에 가까운 규모가 되었다.<sup>34)</sup>

전국상업통제총회는 화중일상면제품동업연합회와 소절환면제품동업연합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소절환중일면제품협의회(蘇浙皖中日綿制品協議會)를 통해 면사포의 거래를 통제하였다.<sup>35)</sup> 1943년 5월에 소절환중일면제품협의회는 면제품의 거래를 등록을 마친 제품을 현물로 거래하는 것만 허가한다는 규약을 정했다.

당시의 면사포의 거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일본군에 의해 물자이동의 제한이 완화되고 저비권이 남발되면서 1943년 상반기의 인플레이션은 심각했다. 특히 면사포의 매점매석

33) “19年度蘇浙皖贛四省棉花收購要綱”(1944.9.6) 「白根理事現地ヨリ攜行書類, 同業會資料(高村直助(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p.332에서 재인용.)

34) 高村直助(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p.294.

35) “綿絲布統制ニ付イテ”(1943.4.22) 中支綿絲布.

이 극심했다. 왕정위 정권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5월에 투기적 매점매석에 대해 최고 사형을 선고하는 '돈적주요상품치죄잠행조례(囤積主要商品治罪暫行條例)'를 공포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자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중요물자 확보를 위해 상해에 있던 60만 곤의 면사포 재고를 강제매입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투기적인 상품매매가 진정되면서 면사의 가격이 1/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상해에서는 물가를 억제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일본군의 자급을 실현하기 위하여 1942년 12월부터 면사포의 공정가격제를 실시하는 한편 면사포의 재고와 생산량을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면사가격 책정을 위해 재화방은 15%의 이윤을 덧붙여 20번수 면사 1곤당 6,200원이라고 사전에 원가를 제출했다. 하지만 결정된 가격은 5,300원이었으며 면포는 1곤당 192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당시 무호(蕪湖)에서의 면사가격은 1만 원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면사포의 공정가격제가 실시되었지만 일본군의 지배력이 화북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화중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여전히 면사포의 투기적 거래가 나타났으며 가격이 급등했다. 1942년 12월 상해의 면사가격은 6,500원에서 1943년 3월에는 20,400원, 6월에는 30,800원으로 폭등했다.<sup>36)</sup>

#### IV. 종전과 재화방의 재편(1945~1949)

##### 1. 전후 복구와 적산 사창의 국영화

중국은 1945년 8월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에 따라 중일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중국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국민정부는 시급히 경제건설에 착수하여 생산력을 회복시켜 민생을 구제해야만 했다. 특히 양식과 면직물, 연료 등의 일용필수품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여 물가 급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물가가 상승하자 생활에 곤란을 느낀 노동자들의 파업이 속출하여 공장 가동이 중단됨으로써 다시 필수품의 공급부족을 초래하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이에 국민정부는 구휼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설비를 복원하여 생산을 제고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방직공업은 국민정부의 입장에서 생필품이며 주요한 산업분야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복구

36) 高村直助(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p.334.

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방직건설공사의 총경리 속운장(束雲章)은

“중국 건설은 방직공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면방직공업이 발달하면 기타 경공업도 따라서 번영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중공업의 발전도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직공업이 발전하게 되면 기계, 화공 등의 분야가 모두 순조롭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만일 방직공업이 없었다면 상해도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구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를 전국으로 그 범위를 넓혀 보면,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계획에서 방직공업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sup>37)</sup>

고 할 정도로 방직공업의 전후 복구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방직공업의 생산력을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방직공업 생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소절환구(蘇浙皖區), 특히 상해 방직공업의 전후 복구가 관건이었다. 따라서 상해에 있던 적산사창, 즉 재화방의 접수와 처리는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의 핵심적인 문제였다. 당시 재화방의 선진적인 설비를 신속히 복원하여 생산에 투입하는 것은 전후 실업 해소와 필수품의 공급,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었다.

각종 접수기관은 적산공장을 폐쇄하고 창고의 원료와 제품, 기타 물자의 이동을 엄격히 금지하였기 때문에 생산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접수대원은 먼저 공장을 봉쇄한 이후 생산을 중단시키고 노동자들에게 해산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각 공장들은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3개월분의 노임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월급이 쌀 1담(약60킬로그램)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쌀 3담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산비로 노동자 한 가족이 3개월도 지탱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후 물가 폭등으로 쌀값은 계속 상승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회국과 경제부 특파원관공처(經濟部特派員辦公處)로 몰려와 실업의 구제 및 복직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적산사창의 신속한 접수와 복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산기업의 접수과정이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8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루어진 적산기업의 접수과정에는 계통과 통일성이 없었으며, 책임의식도 투철하지 않았다. 방직업계의 대표적인 정기간행물인 《방직주간》은 적산기업의 접수에 대해

“경제부는 1945년 9월 하순부터 접수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8월 중순 이후 9월까

37) 束雲章(1948) “中國紡織建設的現狀和前途”, 紡織建設月刊(1卷3期), p.3.



지의 한 달 동안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기계설비와 원료 등은 훼손되거나 소실되어 그 피해가 매우 컸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정부에 보고하기 이전에 물자들을 노동자들의 해산비로 지급하거나 혹은 사사로이 빼내어 판매한 수량도 상당히 많았다”<sup>38)</sup>

라고 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945년 9월 20일 경제부특파원관공처(經濟部特派員辦公處)는 육군 총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상해지역에 있는 일본 사창의 접수에 착수하였다. 특파원들은 공장 책임자들에게 각 공장 및 분창 혹은 영업소 등 일체의 건물, 기계설비, 원료, 현금, 장부, 당안(檔案) 등을 모두 상세하게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동시에 공장 책임자들은 모든 자산의 보관을 책임지고 훼손, 은닉, 판매, 이전 등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적산사창들을 접수하였다.

천진의 경우 적산사창의 접수는 시장과 부시장이 공창연합회와 논의하여 일본영사관으로부터 일본사창의 명부를 받아 공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접수한 후에는 ‘공창연합회접수위원회’라는 인장이 찍힌 목록으로 건물과 물자를 봉쇄하였으며 이것을 특파원관공처가 다시 접수하여 후에 설립된 중국방직건설공사 천진분공사로 이관하는 과정을 거쳤다. 천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특히 중국방직건설공사의 본부가 있던 상해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

## 2. 중국방직건설공사의 설립

국민정부는 중일전쟁 시기 내내 경공업의 민영화원칙을 고수했다. 따라서 중일전쟁을 지원했던 중국의 공업자본가들은 적산기업의 민영화를 요구하였고 자신들이 이 기업들을 접수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민정부도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과정에서 이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의 요청을 단순하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정부는 민영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산사창을 일괄 접수하여 중국방직건설공사(中國紡織建設公司)라는 국영기업을 설립하였다. 송자문(宋子文)은 적산사창의 국영화와 중국방직건설공사 설립을 선언하고 총경리에는 방직사업관리위원회의 속운장을, 부총경리에는 이승백(李升伯), 오미경(吳味經)을, 이사로는 양석인(楊錫仁), 윤임원(尹任元) 등을 임명하였다.

중국방직건설공사는 상해에 총공사를 두고 천진, 청도, 동북에도 분공사를 개설하였다. 이

38) 紡織周刊(7卷5期), 1946.3.5, p.115.

공사는 1947년 당시 전체적으로 38개 공장에 방적기 1,758,480추와 직기 38,591대의 설비를 보유하게 되었다.

〈표 5〉 중국방직건설공사의 지역별 설비 일람(1947년)

지역	공장 수	방추 수(추)	직기(대)
上海	18	887,364	17,548
靑島	8	324,076	7,073
天津	7	323,832	8,640
東北	5	223,208	5,330
합계	38	1,758,480	38,591

자료 : 上海市商會(1947.7), 《紡織工業》, p.L22; 김지환(2009), 전후중국경제사, p.79에서 재인용.

송자문은 “일본 투항 시 적산사장은 모두 350여 만 추의 방추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들을 신속히 복구시켜야 했으며 지체할 시간이 없었고 정부는 국민의 의식주행(衣食住行)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물가가 폭등하는 시기에, 정부가 방직 설비를 장악함으로써 비로소 면사포의 가격을 통제”<sup>39)</sup>할 필요에서 중국방직건설공사를 설립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리고 1946년에 있었던 중국국민당 제6계 중앙집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의 ‘재정금융경제보고결의안’에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난 연후에 비로소 건설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中略) 상해 등 지역의 적산사장들은 폐쇄되어 있고, 후방 사장은 생산을 중지하고 있어, 이것이 노동자의 실업과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현재 특히 민생공업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접수한 공업 설비는 신속히 복구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영사업의 효율에 주목한 것”<sup>40)</sup>

이라고 중국방직건설공사의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있다.

39) 民國日報, 1946.1.23; 大公報, 1946.1.27.

40) 中央執行委員會秘書處(1946) “中國國民黨第六屆中央執行委員會第二次全體會議宣言及重要決議案”, pp. 60-61.

### 3. 敵産 紗廠의 운영과 기술인력

일본인 자본과 기술인력에 의해 운영되었던 적산 사창을 접수 한 후 이 공장들을 정상적으로 재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민정부는 일본 기술 인력을 중국에 잔류시켜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선진적인 공업기술을 습득하고자 했다. 이런 필요성은 공장들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공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이들 기술인력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술인력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국방직건설공사의 총경리 속운장은

“사창의 전후 복원이 곤란한 주요한 이유는 동력의 부족과 함께 숙련 노동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한 명의 숙련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시간이 소요된다”<sup>41)</sup>

고 하여 전후 복구에 숙련노동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적산 사창의 신속한 재가동을 위해 접수와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을 민영사창으로부터 요청하였다. 즉 전국의 방직공업의 관리와 통제를 맡았던 경제부 방직사업관리위원회는 사창연합회에 요청하여 민영사창들이 중국방직 건설공사의 설립과 경영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여러분들이 인원을 조직하여 정부를 도와 적산 일본 기업을 접수하여 관리한다면, 장래 적산사창을 공개 매각하게 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sup>42)</sup>

고 민영사창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는 민영사창이 재화방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숙련노동자의 필요성은 기존의 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자 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재화방이 가지고 있던 생산기술상의 우위를 학습하고자 했던 의도도 있었다. 중국방직건설공사 부총경리 오미경도

우리는 일본 방직사창을 접수하면서 마땅히 일본인의 경영 정신까지 접수하지

41) 紡織周刊(7卷1期), 1946.1.8, p.13.

42) 김지환(2009) 전후중국경제사(1945-1949), 고려대학교출판부, p.187에서 재인용.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인들이 사창을 경영하는 데에 세 가지 점에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양호한 기계설비의 보존 상태, 둘째, 치밀한 관리, 셋째, 근면한 근로정신이다. 따라서 이후 우리 기술 인원들도 이와 같은 점들에 유의하여 기술 훈련과 교육, 육성의 방법에서도 혁신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방직공업은 영원히 일본과 경쟁할 수 없을 것<sup>43)</sup>

이라고 하여 적산 사창의 많은 것들을 배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런 재화방의 기술적 우수성은 다양한 통계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치밀한 기계관리로 인해 “비록 기기 연령이 어떤 것은 3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수하고 이들 구기기의 공작 효율은 신기와 비교하더라도 뒤처지지 않거나 오히려 그 이상이다<sup>44)</sup>”라고 평가받을 정도였다.

일본인 기술인력의 활용성과를 보면 이들을 활용했던 중국방직건설공사가 중국인들이 운영했던 민영사창에 비해 보다 더 높은 효율을 달성하였다. <표 6>은 1946년 11월 현재 20번수 1건을 생산할 경우 중국방직건설공사와 민영사창의 생산 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국영사창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높은 생산성이 일본 기술 인원 유용 등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표 6> 中國紡織建設公司와 민영사창의 생산비용 비교(1946년11월 현재)

단위 : 20번수 1건

	中國紡織建設公司	民營紗廠	비용 절감 비율(%)
노임	160,309.14	178,123.11	10.1
제조 비용	192,668.44	330,356.74	41.7
업무 비용	71,629.00	77,611.00	8.8
총계	424,606.58	586,090.85	27.6

資料 : 김지환(2009), 전후중국경제사(1945~1949), p.113. 재인용

중국방직건설공사가 1946년부터 신중국 성립 이전에 면사, 면포의 생산량은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점차 감소되었다. 특히 동북지역에 1948년 10월 이후 거의 생산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상해에서는 중국방직건설공사의 본부로서 일정한 생산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아래 <표 7>와 <표 8>에서 중국방직건설공사 설립 초기부터 지역별 각 면방직창의 면

43) 上海市檔案館藏檔, 檔號: Q192-26-61: 中紡公司廠長接收人員聯席會報紀錄(28-29次).

44) 談祖彥(1948) “民營廠與國營廠的比較”, 紡織建設月刊(1卷10期), p.7.

사, 면포의 생산량을 볼 수 있다.

〈표 7〉 中国纺织建设股份有限公司 各 綿紡織廠 綿絲 生産量(1946~1948年)

	綿絲 (件)				
	上海	青島	天津	东北	合計
1946년 1월~12월	253,651.09	85,351.41	79,422.70	7,978.70	426,403.90
1947년 1월~12월	388,867.05	146,136.59	184,500.29	26,185.85	745,689.78
1948년 1월~12월	400,914.84	126,801.81	169,503.16	4,531.96	701,751.77

資料：纺织建设月刊 第二卷 第四期 统计 108에서 작성.

〈표 8〉 中国纺织建设股份有限公司 各 綿紡織廠 綿布 生産量(1946~1948年)

	綿布 (碼)				
	上海	青島	天津	东北	合計
1946년 1월~12월	216,470,222	74,864,614	84,653,710	4,842,428	380,830,974
1947년 1월~12월	302,612,105	127,200,774	193,048,887	14,249,981	637,111,747
1948년 1월~12월	313,970,075	109,262,708	174,275,96	1,370,356	598,879,099

資料：纺织建设月刊 第二卷 第四期 统计 108

뿐만 아니라 중국방직건설공사 상해지부 면방직장 이외의 제마창, 견직창 등의 생산량도 신중국 성립 이전에 증가하고 있었다.<sup>45)</sup>

#### 4. 중국방직건설공사의 민영화

중국방직건설공사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천명했으며 1946년 초에 이사회에서 송자문이 민영화원칙을 재차 확인하였다. 총경리 속운장 창장회의에서 공사 소속 각 공장들은 모두 민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당 제6계 3중전회에서도 송자문은

“반드시 국가가 경영할 필요가 없는 기업을 처리하고, 적산산업 및 잉여 물자를 매각하며, 아울러 세수를 정리하여 단기간 내 신속히 재정 부족을 보충함으로써 통

45) 纺织建设月刊 第二卷, 第四期, 统计 108.

화의 팽창을 방지해야 한다. (중략) 아직 매각되지 않은 적산기업은 신속히 매각하며, 정부가 반드시 경영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생산사업은 매각하여 민간의 경영으로 이관하거나 혹은 주식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매각하여 재정 수입을 보충한다”<sup>46)</sup>

고 밝혔다. 이후 1947년 4월에 공포된 ‘국영사업의 민간매각관법 8조’에 중국방직건설공사를 대부분 주식발행으로 공개매각하여 민영화 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즉 중국방직건설공사는 재정 수입 확대와 매각을 통한 통화팽창의 완화를 목적으로 매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방침은 국민정부의 면사포투매정책을 비롯한 면업통제정책이 중국방직건설공사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자 이 공사가 스스로 민영화하여 상업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상황까지 진척되었다.

드디어 1948년에 들어서서 국민정부는 ‘경제긴급조치방안’을 발표하고 중국방직건설공사의 매각에 착수했다. ‘재정경제긴급처분령’과 ‘금원권발행준비이교관리관법(金圓券發行準備移交管理辦法)’이 발표되면서 국민정부는 중국방직건설공사의 민영화 방침과 주식 발행 방안이 결정되었다. 1948년 9월 10일에 중국방직건설공사는 주식을 상장했으며 9월 11일부터 중국방직건설주식유한공사(中國紡織建設股份有限公司)로 변경되었다.

1948년 중반에 들어서면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이미 붕괴과정에 있었던 법폐를 폐지하고 금원권(金圓券) 발행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방직건설공사와 같은 국영기업의 매각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8년 8월 22일에 ‘금원권발행준비이교관리관법’이 공포된 이후에 주식 발행을 통해 중방공사를 비롯한 국영기업들을 매각하기로 확정되었다.

매각방법에서도 각 개별 공장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방직자본가들 사이의 대립과 구입 대상의 선정 및 수속의 어려움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다. 이 방안은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공장을 매각하는 방법보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으로 판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공사의 지분 전부를 매각했을 경우 면업통제정책을 폐기 어려워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산 가운데 30% 정도만을 매각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방직건설공사의 자산평가 및 가격 산정이 필요했다. 이것에 대해 이미 1947년 3월 27일 속운장은

“중방공사의 가격 산정 공작은 마땅히 엄격하고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46) 김지환(2009) 전후중국경제사(1945~1949), 고려대학교출판부, p.190에서 재인용.

이러한 과정이 전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中略) 전문가 및 사회적으로 신용이 있는 인사들로 전문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들로 하여금 중방공사의 각항 자산을 평가하고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여 공평하고 공정하게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sup>47)</sup>

고 주장하였다. 1947년 4월, 국민당 제6계 3중전회에서 행정원 경제위원회가 경제부를 통해 중국방직건설공사 가격산정위원회를 조직하고 매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도록 결정되었다. 동시에 중국방직건설공사도 12,000대 1의 환율로 물가지수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자산평가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가격산정위원회는 각 사업 단위마다 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가격산정위원회에 송부하기 위하여 기본 단가, 물가 상승의 정도, 감가상각계수, 성능계수, 표준단가표 및 자산표준총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산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별로 나누어 첫째, 부동산, 둘째, 기계설비, 셋째, 운수공구, 넷째, 원료 및 기계 물료 등을 모두 평가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sup>48)</sup>

## 5. 국민정부 말기 면업 통제

1948년 9월 국민정부는 면화가격의 상승을 억제하여 원면공급과 면사포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행정원(行政院) 경제관제위원회(經濟管制委員會) 상해물자조절위원회(上海物資調節委員會)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중국방직건설공사와 민영사창의 대표가 중영은행 대표사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면화 수매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원면을 확보한다는 기본 방침이 제정되었다.

이 위원회는 국면연합수매처를 설치하여 중국방직건설공사와 민영 사창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국내면화를 일관적으로 수매하기로 하였다. 수매자금은 각 사창에 할당하여 출자를 받고 중영은행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내산 면화만으로는 원면수요에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면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48년 총 4억 달러로 결정된 원조액 가운데 주요한 품목으로 원면 36만포를 원조 받았는데, 이 수량은 중국 방직업 전체 방적기에 2개월 정도를 공

47) 저자미상(1947) “紡建公司讓售民營問題, 東雲章昨招待記者談”, 公益工商通訊(1卷1期), p.20.

48) 上海市檔案館藏檔, 檔號: S-30-2-217: 第六區機器棉紡織工業同業公會王啟宇理事長擔任中紡公司估價委員會委員參加會議發來的會議紀錄.

급할 수 있는 수량이었다.<sup>49)</sup>

종전 이후 공업생산의 지체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위기가 발생되자 대도시에서는 격렬한 노동운동이 발생되어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품인 쌀과 면사포, 연료 등에 대한 가격통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1948년 8월에 면사포 가격의 제한 조치가 시행되자 이 가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계속되었다.

“20번수 면사 1건의 합리적 가격이 950원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지 707원으로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공상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법적인 이윤을 보충받기 원한다. 따라서 가격제한은 반드시 이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인 이익의 침해는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도리에도 어긋난다.”<sup>50)</sup>

라고 방직업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방직건설공사의 이사회도

“현재 중방공사에서 생산되는 20번수 면사의 실제 생산원가는 780원이며, 더욱이 이것은 아직 이윤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다. 그럼에도 가격을 707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손실이 막대하다. 중방공사로서는 비록 정부의 명령을 준수하여 제한가격 안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조정이 있지 않고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

라고 가격제한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시장에서도 이런 가격제한조치에 반발하여 물물교환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민영사창 뿐만 아니라 중국방직건설공사에서도 여기에 가담하였다.

이런 물물교환은 금원권의 신용을 붕괴시켜 물가를 급등시키고 결국 면화가격도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당시 암시장에서 매 담 170~180원의 가격대가 형성되었지만 130원 수준에서 가격이 제한되자 시중에서 면화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암시장의 가격은 더욱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사포시장(紗布市場)에서 면사포 교역을 전면 중단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사상공회(紗商工會) 소속의 620개 면사상(綿紗商)은 영업 정지에 들어가고 상해의 일

49) 陳荷夫(1948) “論美援棉花的運用”, 紡織周刊(10卷1期), p.5.

50) 包敬第(1948) “新經濟管制與紡織業”, 紡織建設月刊(1卷11期), p.4.



용필수품은 화남지역(華南地域)으로 유출되었다. 또한 제한가격에 면사포를 판매한 중국방직 건설공사 등의 손실은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이제 중방공사를 통한 국민정부의 면사포 투매정책은 더 이상 면사포 가격의 안정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1949년에는 중국 면업 자체가 마비상태가 된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중국 상해지역에 투자되었던 일본 방직자본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재편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침투했던 외국자본이 급변하는 중국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 갔으며 2차 대전 이후에는 국민당정부가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재화방으로 말미암아 민족방이 점차 몰락했다는 '쇠퇴론'과 재화방과의 대립과정에서 발전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발전론'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런 논의와는 다르게 '쇠퇴'와 '발전'의 양극단이 아니라 재화방이나 민족방이 중국경제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거나 쇠퇴했는가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민족방이거나 재화방이거나 자본축적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대립보다는 이들을 규율하는 외부환경에 대해 각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나라가 일본과 마관조약(馬關條約) 등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자 1890년대부터 일본자본이 대규모로 중국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은 중국에 합법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고 설립하였지만 일본 자본가들은 상대적으로 조심스럽게 중국시장에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상해는 상대적으로 편리한 지리적 위치와 발전된 공업, 그리고 조계 등의 경제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자본은 선진적인 기술과 우수한 숙련공 그리고 합리적 운영방식을 가지고 상해에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파산직전의 공장을 헐값으로 인수하기도 하였다.

청일전쟁(中日甲午戰爭), 8국연군침화전쟁(8國聯軍侵華戰爭), 러일전쟁을 통해 일본의 대중국투자는 커다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만철(滿鐵) 등과 같은 대규모 직접투자를 시작했다. 방직자본은 파산 직전의 면방직공장들을 인수함으로써 투자 자금과 시간을 절약했다.

그렇지만 1931년 동북3성을 일본군이 점령하자 일본 내부 방직자본이 이 지역에 직접 상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재화방을 비롯한 모든 방직자본에게 ‘이중과세’를 부과하였다. 이런 조치는 민족방 뿐만 아니라 상해지역의 재화방에게도 커다란 타격이 되었다.

중일전쟁 시기에 대부분 중국인민들은 재화방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으며 1937년 중일전쟁 직후에는 직공들의 파업으로 재화방의 조업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화방은 공장의 매입과정에서 알게 된 중국인들을 앞장세워 공장을 다시 정상화 시켜 생산을 재개했다. 재화방의 위축으로 중국 민족방의 생산설비는 재화방을 능가했지만 여전히 생산효율면에서는 재화방에 뒤지고 있었다.

중일전쟁 승리 직후 국민정부는 방직공업 등의 경공업의 국영화 방침을 결정하고 적산 사창을 통합하여 중국방직건설공사를 설립했다. 국영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 중국방직건설공사는 국민정부의 재정적 필요나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내전의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공사는 전시에 억눌려 있던 수요가 전후에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여 수급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며 인플레이션과 통화팽창을 억제하고자 했다. 따라서 폐쇄된 적산 공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생산을 재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생산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투매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중국방직건설공사는 국민정부에게 전후 경제건설의 핵심적인 추진체가 되었다.

국민당정부는 중일전쟁 승리 직후에 재화방 등의 외국자본들을 국유화하여 산업발전의 기본적인 역량으로 배치하면서 나름대로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기업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그 기반을 토대로 기업들을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 정책 등을 통해 국민경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였다.

현재 중국은 외국자본들을 활용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구축하는 경제 환경이 외국자본의 역할과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20세기 초 중국에 투자했던 재화방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지환(2009), 전후중국경제사(1945~1949), 고려대학교출판사, pp.184-230.
- \_\_\_\_\_(2005), 중국 국민정부의 공업정책, 신서원, pp.37-38.
- \_\_\_\_\_(1998), “중국 근대 면업사의 연구동향 소개”, 국회도서관.
- \_\_\_\_\_(1992), “중국에서의 일본 재화방의 성립과 성격”, 사총 Vol. 40, 고대사학회.
- 이희경(1984), “중국의 면방직공업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 석사논문, 숙명여대 대학원.
- 고촌직조, 김자환 역(2005),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pp.324-329.
- 嚴中平(1963), 中國棉業之發展, 中國近代史論叢, 第二輯, 第二冊, 科學出版社, 北京, 中國.
- \_\_\_\_\_(1955), 中國棉紡織史稿, 科學出版社, 北京, 中國.
- \_\_\_\_\_(1955), 中國近代經濟史統計資料選輯, 科學出版社, 北京, 中國.
- 南京中國第二曆史檔案館藏檔, 檔號: 76-275: 紡管會, 紡建公司會報記錄.
- 南京中國第二曆史檔案館編(1991), 中華民國史檔案資料彙編, 第五輯第一編財政經濟(二), 江蘇古籍出版社, 中國, pp.63-66.
- 上海市檔案館藏檔, 檔號: Q192-26-61: 中紡公司廠長接收人員聯席會報紀錄(28-29次).
- 上海市檔案館藏檔, 檔號: Q192-9-540: 上海紡織注視會社 昭和十八年度 一般概況.
- 上海市檔案館藏檔, 檔號: Q275-1-832: 上海紡織株式會社 第四十三期營業報告書.
- 中央執行委員會秘書處(1946), 《中國國民黨第六屆中央執行委員會第二次全體會議宣言及重要決議案》, pp.60-61.
- 上海市年鑑編纂委員會(1946), 《上海市年鑑》, 中華書局, 中國, pp.23-24.
- 上海市紡織委員會(1998), “上海紡織工業志”, 上海社會科學學院出版社, pp.60-65.
- 저자미상(1947), “紡建公司讓售民營問題, 束雲章昨招待記者談”, 公益工商通訊(1卷1期), p.20.
- 陸鳴芝(1994), “戰後恢復時期的中國棉紡織業(1945~1949)[J]”. 東華大學學報(自然科學版), 中國.
- 朱 婷(1999), “中紡公司’國家壟斷資本企業的特征[J]”. 上海經濟研究 第4期, 中國.
- 陸仰淵(1993), “中紡公司的建立及其性質”. 近代史研究 第二期, 中國.
- 鄭友揆(1984), “中國的對外貿易及工業發展”, 上海社會科學出版社, 中國, p.209.
- 莊紅娟(2005), “近代日本的對華投資輸出原理”, 上海經濟研究 第十二期, 中國.
- 束雲章(1948), “中國紡織建設的現狀和前途”, 紡織建設月刊(1卷3期), 中國, p.3.
- 談祖彥(1948), “民營廠與國營廠的比較”, 紡織建設月刊(1卷10期), 中國. p.7.
- 雷錫璋(1947), “爲中紡由國營轉爲民營折衷輿論略抒己見”, 紡織工業, 上海市商會, 中國, p.A67.

- 陳荷夫(1948), “論美援棉花的運用”, 紡織周刊(10卷1期), 中國, p.5.
- 包敬第(1948), “新經濟管制與紡織業”, 紡織建設月刊(1卷11期), 中國, p.4.
- 王子建(1933), “日本之棉紡織工業”, 社會調查所, 中國, p.13.
- 徐 行(2005), “中韓關係史上重要一頁-戰後上天津暨華北韓僑的集中管理和遣返”. 近代史研究.
- 馬 軍(2006), “戰後國民政府遣返韓人政策的演變及在上海地區的實踐”. 史林2006年2期 참조.
- Feuerwerker. A., 林載爵 譯(1978), 中國近百年經濟史(1870~1949), 華世出版社, 台北, p.106.
-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第2部工業班) (1935), “紡績工業對策要綱”, pp.9-10.
- 中支棉花協會(1941), “上海棉花狀況月報”, 同業會 자료, 中國.
- 中支那年報刊行會(1943), 中支那經濟年報, 제3집, 제4장, 中國.

## The Research on Japanese Textile Factory in Shanghai of China

Sun Ling Ling\*

###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confirm economic historic current events of holding the Foreign Capital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t present, cause out the radical development in Chinese Economics, by observing the process in evolution,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Japanese Spinning and Weaving Capital which had invested in Shanghai of China.

The existing researches include two parts. One is the theory of Chinese Spinning and Weaving Capital had gradually went bankrupt because of Japanese Spinning and Weaving Capital, and the other is in the process of opposition with Japanese Spinning and Weaving Capital, Chinese Spinning and Weaving Capital caught the opportunity of development. But in this research neither 'go bankrupt' nor 'development', it focuses on how Japanese Spinning and Weaving Capital and Chinese Spinning and Weaving Industry to adapt by the changed environment. In another words the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by observing the Chinese Spinning and Weaving Capital and Japanese's, we can see the purpose of both of them is to pursuit the profit, so it's more important for them to against with the Economic Policy than confront each other.

**Key Words** : Japanese Textile Capital in China, Chinese Textile Factory, dual tariffs, the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 China Textile Construction Co., Ltd.

---

\* Graduate Student(Ph.D course), Dept. of Economics, Dankook University,  
E-mail : junicesun@naver.com

